

신앙심과 마음(心)의 능력

신앙은 올바른 진리에 대한 확신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신앙심은 이런 확신을 살아가게 해주는 마음의 능력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심이란 예수님을 닮으려는 마음이다. 하느님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하여 자신을 죽음의 십자가에 내어주면서도 부활의 희망을 몸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열정(passion)을 닮으려는 마음의 힘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모두가 이와 같은 열정과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은 아니다. 열심히 살려고 해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기는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 인간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상처와 갈등들, 교회 안에서의 느끼는 실망과 회의 등으로 이 열정은 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내게 그런 열정이 사라져도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 있는가? 대답은 그렇다. 이유가 어쨌든 세례성사를 통하여 내 마음이 하느님을 떠나서는 잠시도 평화로울 수 없다는 실존적 처지가 밝혀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금 내가 하느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거나, 길을 찾지 못했거나, 때로는 알면서도 가고 싶지 않은 것뿐이다.

우리의 마음(心)은 어떤 대상을 향해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러나 마음이 향하는 대상이 무엇이나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넘칠 수도 있고, 분노와 걱정이 앞설 수도 있다. 신앙심은 우리 마음이 향하는 힘을 참된 진리이신 하느님께로 향하고, 올바른 선(善)을 지향할 때 생긴다. 그저 주일 미사나 판공성사의 의무를 채우는 데 급급한 신자들에게 신앙심이란 남의 이야기이다. 마음이 하느님을 절실하게 찾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에 합체되더라도 사랑 안에 머무르지 못하고 교회의 품 안에 ‘마음’이 아닌 ‘몸’만 남아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교회헌장 14항). 신자라 하더라도 성당 문을 나서면 더 완고하고, 세속적이며, 가톨릭 정신과 무관해지는 우

리들의 치졸한 마음을 꼬집는 말이다. 세상살이가 힘들어질수록 마음의 능력을 되찾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국에는 내 마음먹기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남을 바꿀 수 없을 때 차라리 내가 바뀌면 된다는 단순한 논리를 깨달은 인생 선배들의 덕담이 공감이 가는 때이다. 거짓 마음을 버리고 참된 마음(眞心)을 찾기 위한 내적 수양을 강조하는 불교의 수행이나, ‘화’를 다스리는 법, 명상과 뇌호흡 등을 통한 기수련 등의 자기 계발과 마음 수행이 복잡한 현대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매력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심은 단순히 자신의 마음을 수련하는 것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신앙심은 자아수련을 통해 마음의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고통을 직면할 수 있게 해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앙심은 고통의 근원을 없애는 예방의학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고통의 현실을 극복하게 해주는 치료의학의 힘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얻는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심은 십자가 없이는 생기지 않는다. 십자가에 이기적인 나를 못박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죽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렇게 죽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힘을 키워야 한다. 하느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마음의 힘. 그 힘을 주십사 하루의 짧은 시간이라도 그 분 앞에 앓을 수 있는 용기가 그 시작이다.

송용민 사도 요한 신부 | 인천가톨릭대학교 교수

예수님의 칭호와 의미

알파와 오메가 (Α Ω)

희랍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인 알파와 오메가는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요한묵시록을 통해서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는 일반적으로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말로서 그리스도께서 세계 역사의 처음부터 종말까지 지배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알파벳 두 글자가 모든 글자들을 포함하고 있듯이 하느님께서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차원에서 모든 것을 포함하고 계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물고기(IKΘΥΣ / ιχθύς)

물고기는 로마 박해 시대 때, 신자들이 서로를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암호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 아들, 구세주”라는 희랍어의 첫 글자를 따서 모으면 ‘익투스’ 즉 물고기라는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예수는 예수스,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 하느님은 테오스 그리고 아들은 휘오스, 구세주는 소테르라는 뜻이 되고, 이 글자들의 첫 글자만을 모으면 익투스가 되는 것입니다.

키로(XP / χρ)

키로는 희랍어 <그리스도>의 처음 두 글자를 따서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는 예수님의 상징으로서 제대나 제구, 제의 등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키로를 피엑스나 팩스로 읽지 말고 언제나 ‘그리스도’라고 읽어야 합니다.

I.N.R.I.

I.N.R.I.는 로마 총독이었던 본시오 빌라오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죄목으로 써 붙인 명패입니다. “유다인의 왕 나자렛 예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I는 라틴어로 예수스의 첫 글자이구요, N은 나자레누스의 첫 글자. 그리고 R은 렉스, 마지막 I는 유데오름의 첫 글자입니다.

본당발전을 위한 기도

-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후보성인인성 바오로 정하상의 모범을 본받아 열심히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의 보살핌 속에 하나되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의 계명을 가정과 이웃, 지역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 본당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주님의 기쁜소식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 ◎ 주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제를 위한 기도

-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성체와 성혈을 이루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주소서.
-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 사제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강복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 ◎ 아멘.

본 당 소 식

● 울뜨레아 모임

오늘 미사 후에 있습니다.
문의 : 김현대 요셉

● 2월 구역모임 안내

▶Kitchener 미정
▶Cambridge 21일 6시pm 김흥식 형제님덕
▶Brantford 21일 8시pm 윤성호 형제님덕
▶Weterloo 1구역 미정
▶Weterloo 2구역 28일 7시pm 노재현 형제님덕
▶Weterloo 3구역 14일 6시pm 최동호 형제님덕
▶Weterloo 4구역 21일 6시pm 최우석 형제님덕

● 성모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무료로 제공하던 친교식사는 오늘부터 유료화합니다. 식사는 \$ 3, 커피는 \$ 1입니다. 모든 수익금은 불우 이웃 돕기에 쓰일 예정입니다.

현금은 받지 않고, 쿠폰으로 받으니 미리 쿠폰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성모회 총무 한재희 테레사

● 성전건립기금 마련 컴퓨터 점검 서비스 안내

일 시 : 3월 1일/8일/15일/22일/29일

12시 ~ 4시 / 교육관

비 용 : 바이러스 및 시스템 점검 \$30

시스템 업그레이드 - 실비

문의 : 한택중 막시모 519 883 8488

● 예비자 모집(포스터 부착)

2월 한 달 동안 예비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은 사목회 선교분과장에게 하십시오. 1년에 한 명씩 교회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터 부착이 가능한 모든 곳에 예비자 모집 포스터를 부착해 주십시오.

문의 : 박재영(바오로) 519 747 4981

교리시간 : 주일 미사 후 1시간(교육관)

● 로고스회(성경공부) 모임

신자들의 요청에 따라 수요반은 매주, 금요반은 격주로 합니다.

2월 18(수) 10시 미사 후

2월 20(금) 오후 8시 미사 후

● 성지가지 회수

지난 해 사용하신 성지가지를 다음 주일(22일)까지 본당입구에 가져다 놓으시고, 잊으신 분은 늦어도 2월 27일(금) 미사 전까지 소성당에 가져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 미사지향 신청

본당에서 마련한 봉투에 작성하셔서 사목회 전례신심분과장에게 신청하십시오.

문의 : 정경래(안스가리오) 519 579 3213

● 후보공지 안내

각 단체장과 사목위원들은 후보에 공지하실 사항을 매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사목회 총무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한택중(막시모) 519 883 8488

이메일 : tj1234@catholic.or.kr

● 주일 미사 성가곡

2월 18일 (수) 입 436/봉 216/성 182/퇴 480

2월 19일 (목) 입 13/봉 217/성 497/퇴 21

2월 20일 (금) 입 26/봉 219/성 498/퇴 19

2009년 2월 1일 헌금 내역

주일헌금 : \$ 787.00

교 무 금 : \$ 320.00

성전건립 : \$ 30.00

Total :\$1137.00



KW한인천주교회

516 Franklin St. N., Kitchener
Ontario. Canada. N2A 1Z4

☎ 519 208 1913

FAX 519 954 1913

주임신부 김선호 루카

lucasmuse@korea.com

사무봉사자 519 894 3533

2009년도 사목지침

“말씀과 성체 안에서 본당 토대 다지기”

실천사항

1. 성서 쓰기, 읽기
2. 평일미사 참여하기
3. 주요기도문 다시 외우기

주일 미사

평일 미사

유아 세례

병자 성사

혼인 성사

예비자교리

고해성사

축복식(차량,주택,가게)

주일 오후 5시

화(구역방문), 수 오전 10시,
목 오후 8시, 금 오후 8시

1주일 전 신청

상시

10개월 전 신청

10개월, 통신교리는 1개월 보충

미사 전 20분

1주일 전 신청

2009-09호

2009. 2. 15.

연 중 제 6 주일

미 사 전 레

해 설 이정숙

차주 해설 이명희

화 답 송 (성가 362)

주님은 저의 피신처, 구원의 환호로 저를 에워싸시나이다.

복음환호송 (성가 365) ◎알렐루야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났도다.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도다. ◎

영성체송 그들은 실컷 먹고 배불렀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바람을 채워 주셨음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으셨도다.

성 가

입 당 (21) 지극히 전능하신 주여
봉 헌 (212) 너그러히 받으소서
성 체 (163) 생명의 성체여
퇴 장 (401) 주를 찬미하라

독 서

2월 15일	박용대	박명옥
2월 22일	노동원	노성은
3월 1일	윤명원	윤명희

2월 15일	봉 서자호	현 서윤희
2월 22일	박용대	박명옥
3월 1일	노동원	노성은

2월 15일	복 류지홍	사 호동
2월 22일	최예슬	류지현
3월 1일	김근영	구한형

친

2월 15일

환희팀

교

2월 22일 영광팀